

보도 일시	2021. 11. 24.(수) 10:00	배포 일시	2021. 11. 24.(수) 10:00
담당 부서	문화예술정책실 전통문화과	책임자	과장 박미경 (044-203-2550)
		담당자	사무관 김하정 (044-203-2549)

## 브레이브걸스, 로지가 함께하는 한복의 물결, 뉴욕을 넘어 세계로 나아간다

- 11. 23. 뉴욕 타임스퀘어 광장 전광판에 한복 디지털 패션쇼 공개,  
11. 30. 누리소통망에 '로지' 한복 화보 공개 -

케이팝 가수 '브레이브걸스'와 '다크비', 가상인간 '로지'가 세계로 나아가는 한복 물결에 힘을 보탠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원장 김태훈, 이하 공진원)과 함께 11월 23일(화) 오후 7시(현지 시각), 뉴욕 타임스퀘어 브로드웨이\*에 있는 전광판에 한복 디지털 패션쇼 광고 영상을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한 영상은 '브레이브걸스'와 '다크비'가 함께한 '한복 디지털 패션쇼'를 짧게 편집한 영상이며, 전체 영상은 11월 24일(수)부터 한복물결 누리집([www.hanbokwave.com](http://www.hanbokwave.com))에서 볼 수 있다. 아울러 가상인물 '로지'가 디지털 패션쇼에 등장한 한복을 입고 찍은 화보도 11월 30일(화), 온라인으로 공개한다.

\* 3 Times Sq, New York, NY 10036, USA

### 한복의 물결, 전 세계의 눈을 사로잡다

한복 디지털 패션쇼 '한복웨이브(Hanbok Wave)-한복의 물결이 온다'는 '한복 분야 한류 협업 콘텐츠 기획·개발' 사업의 결과물이다. 문체부는 한류 문화예술인과 협업해 한복업계가 해외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한류 문화예술인으로서 '브레이브걸스'와 '다크비'가 사업에 참여하고

▲ 김혜순한복, ▲ 꼬마크 바이 돌실나이, ▲ 단하주단, ▲ 리브 담연, ▲ 리슬, ▲ 모리노리, ▲ 생성공간여백(기로에), ▲ 시지엔 이, ▲ 차이킴, ▲ 헤미 바이 이혜미 등 한복업체 10곳이 함께했다. 이들은 8월부터 한복 상품 기획·개발을 시작해 총 70벌을 개발했다. 이번에 개발된 한복 상품에는 한복 고유의 멋과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기획·개발에 직접 참여한 ‘브레이브걸스’와 ‘다크비’ 멤버 개개인의 개성과 매력도 반영했다.

사업에 참여한 생성공간여백(기로에) 박선옥 대표는 “한복의 색과 선, 소재의 특성을 십분 활용해 일상 속에서는 편안하게 입을 수 있도록, 무대 위에서는 강렬한 시각적 효과를 줄 수 있도록 의상을 제작했다.”라며, “이번 디지털 패션쇼는 전시된 한복을 주로 접해왔던 해외 한류팬들에게 ‘입는 옷’ 한복이 가진 새로운 매력을 보여주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가상 인간 ‘로지’, 한복 알리기에 동참

높은 인지도를 자랑하는 가상 인간 ‘로지’도 한복의 매력을 알리고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로지’는 이번 사업에 참여한 한복업체의 대표 의상을 입고 화보를 촬영했다. 화보 10점은 누리소통망(www.instagram.com/rozy.gram)에서 만나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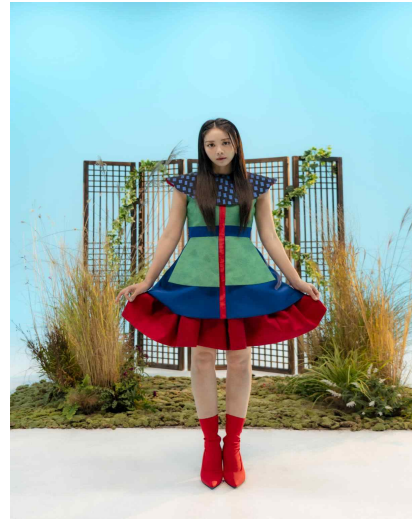
문체부 이진식 문화정책관은 “패션의 중심지인 뉴욕에 한복의 매력을 알릴 수 있어 매우 기쁘다.”라며 “방탄소년단(BTS), 블랙핑크가 출연한 뮤직비디오 등 대중문화를 통해 해외에서 우리 옷 한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제는 우리 옷 한복도 한류 문화예술인과 함께 신한류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붙임 1. <한복웨이브(Hanbok Wave)-한복의 물결이 온다> 영상 갈무리  
2. 가상인간 로지의 한복 화보 이미지  
따로 붙임 뉴욕 타임스퀘어 전광판 현장 사진



붙임 1

<한복웨이브(Hanbok Wave)-한복의 물결이 온다> 영상 갈무리



				
김혜순한복	꼬마크 바이 돌실나이	리브 담연	단하주단	리슬
				
모리노리	생성공간여백 (기로에)	혜미 바이 이혜미	시지엔 이	차이킴